

칼럼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행동주의 주주의 시조 로스 페로

1979년에 이란에서 사업 중이던 미국 기업의 임원 두사람이 계약분쟁 때문에 이란정부에 체포되어 수감되는 일이 일어났다.

합류했다. 당시 GM은 로저 스미스가 경영하고 있었는데 관료주의가 팽배했고 회사는 전반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해 첨단 시설과 난공불락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도 일본 자동차회사에 밀리고 있었다.

미국 회사들을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장비를 가지고도 효율적인 경영으로 가성비 좋은 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에 앞서간다고 지적했다.

페로는 대학을 다니다가 해군에 입대해 구축함과 항공모함에 근무했다. 1957년에 제대한 페로는 IBM에 입사해 최고의 세일즈맨이 된다.

페로는 회사의 실정을 파악한 후 곧 실망했다. 포춘지와 인터넷에서 이렇게 요약했다. "나는 뱀이 보이면 바로 죽이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GM에서는 뱀이 보이면 뱀에 대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뱀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 동안 논의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뱀이 아직 아무도 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공장에서 돌아다니게 둡니다. 우리는 뱀을 발견한 첫 직원이 바로 뱀을 죽이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신을 받은 스미스는 페로를 이사회에서 축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스미스가 경영한 9년 동안 GM은 공장 신축에 80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휴즈항공사를 인수하는데도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

1984년 EDS가 24억 달러에 GM에 매각되면서 페로는 GM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사회에

1985년 10월 23일에 페로는 그 유명한 다섯 페이지짜리 서신을 스미스에게 보낸다. 권위주의적인 경영 스타일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페로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과 자금력으로 미

은 미국에서 침묵하는 거인 기관 투자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 기업 지배구조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GM을 떠난 몇 주 후에 페로는 당시 애플에서 축출되었던 스티브 잡스를 TV에서 보았다. 잡스의 열정에 감명받은 페로는 잡스가 새로 시작한 NeXT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엔젤이 되었다.

로스 페로는 1992년에 무소속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클린턴, 아버지 부시에 이어 19%를 득표해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이래 무소속으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페로가 스미스에게 1985년 서신을 쓰던 당시까지 미국의 자본 시장은 '기업사냥꾼'으로 불린 레이더(Raider)들이 행동주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社說

안전한 미래 위해 불편 감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동안 무려 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5만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환자가 쏟아지는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형편이 나아도 한참 나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도 장기화하는 코로나 방역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일 때로 쌓일 상태다.

광주의 현 상황이 올해 초 대구·경북처럼 코로나 전파의 거점이 된다면 순식간에 제3차 유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가 많이 이뤄지는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이런 수칙이 아주 쉽게 무너지고 있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벌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으로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약 불법 주정차를 사진 촬영할 경우 차량번호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금지구역 역할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함께 찍어야 한다.

10m 이내 △횡단보도 위로,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연중 24시간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절대 안전구역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또한 어른들의 몫이다.

평일인 경우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 사이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

그래서 주민홍보를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단, 주말과 공휴일은 신고 대상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